

'신문답'으로 풀어보는 선사들의 삶

젓나무는 언제 부처가 되나 문운정 지음 · 정병래 그림 | 바움 펴냄 | 1만원



뜬금없는 질문을 하거나 어이없는 대답을 할 때 '신문답 하나?'는 힐난을 받게 된다. 신문답(新聞答)이란 게 원래 그렇게 뜬금없고 어이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신문답은 선 수행을 통해 깨달은 '그 무엇'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인연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 무엇'을 던져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묻고 답하는 행위 자체가 간절한 수행이고 깨달음의 활로를 여는 모티브다. 그래서 신문답은 철저하게 살아 있는 정신의 표현이다.

중국 선불교를 풍미한 수많은 선사들의 삶도 신문답으로 장엄되었다. '어록'으로 전해지는 선사들의 수행단면들은 깨달음을 향한 열정이 시와 때를 초월해 일상 그 자체로 녹아 있었음을 보여 준다.

선사들의 일상 언어, 그 신문답들의 깊이에 흠뻑 빠져드는 것은 행복한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록들을 읽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공부 이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쉽게 읽고 신문답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나침반'이 나왔다. 수필가 문운정(사 진씨)가 선사들의 신문답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그 고갱이를 우리 일상의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결집된 말'을 단 <젓나무는 언제 부처가 되나>를 펴냈다.

간결한 신문답은 고암 정병래 화백의 전각으로 다시 묘사되어 읽고 보고 느끼는 재미를 한꺼번에 준다. '선사들의 재치'와 '선사들의 지혜'로 나뉘어 소개된 신문답들은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엄연한 가르침을 전해 준다. 한 꼭지를 소개한다.

임연태 기자 yilm@buddhapia.com

신문답

혜종 국사에게 한 나라이 목업다.
"스님께서 백해산에 계실 때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국사께서 독기를 불러세우고 손으로 적수리를 어루마키면서 말씀하시니, '또 권도라할 때엔 또 권도라하고, 여왕님에 에는 여왕님께 하라. 이후로 다시는 남에 계속지 마라.'"

지은이의 결집인

유선(遺仙)의 수백은 책과도, 그리고 남치는 광고도, 우리의 의식은 이만한 것에 조금씩 주독 사서하고 있습니다. 재치와 행복의 가치가 탁월한 한테인데, 자신도 모르게 책 읽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사와 현대문화에 대한 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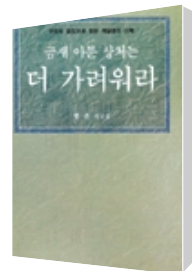


유역 제2호
솔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몽골의 드넓은 평원과 유목민의 전통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살고 있는 몽골리인들의 일상. 지난해 11월 입적한 관조 스님의 사진을 통해 몽골을 만나면 가슴이 서늘해진다.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불교 유적의 아름다움을 만날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나라의 숭대문화 현장을 탐방한 기사를 읽으면 삶의 근원에 대한 사색을 하게 된다.

작년 장간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유역> 제2호는 고대사와 현대문화의 유역들을 심층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김철규 선생(서강대 명예교수)의 권두 에세이 '웃음이 없는 사회여, 많이 웃으시오'로 문을 연 <유역> 제2호는 강우방 교수의 세계미술사와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가들의 해안과 현장답사로 소개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잔잔한 일상 같은 스님의 詩語



금세 아흔 상처는 더 가려워라
변은 지음 | 조선문화사 펴냄 | 1만원

'잠 익새는 잔잔한 햇빛 속 서릿바람 머리에 인대로 행객 하는 고행승처럼 자신의 심신을 비움대로 비움 줄도 몰랐다.' (연세풀음)

시인 변은 스님(현불선원장 주지)이 시집을 출간했다. 세 번째다. 스님의 시는 주로 산문체가 많다. 스님의 수필 같은 글 속에 토속적이고 정감 있는 시어들이 간간히 박혀 있다. 주제들도 주로 '오는 날' '오월의 소묘' '적막강산' '가을비' 등 계절과 일상생활의 소회들이다. 그래서 시(詩)지만 읽기가 편하다. 마치 <엽구경>을 읽는 것처럼 편안히 가슴에 와닿게 한다. 김주일 기자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 물을 펼친다 김성우 엮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 3000원



영흥(永興) 스님은 누구?

1947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난 스님은 21세에 망월사에서 출성 선사의 벽력같은 활(喝)에 언하대오(言下大悟)하고, 24세에 처음 자수용삼대에 들었다. 45세에 서종 대종사로부터 전법계(傳法契)를 받은 스님은 진천 불리산 토굴에서 수좌와 재가 수행자를 지도하며 보람하고 있다. 법명은 성명(性明), 법호는 후제(後濟)이다.

신문답은 옛 선지식들이 수행자들을 깨닫게 하는 언행과 행동이다. 그 행 자체에는 깊은 진리와 지혜가 응결돼 있어 말끝에 단박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긴 여운이 남는다.

그래서 이런 신문답은 수행자의 이정표가 됨은 물론, 일반인들이 살아가는데 곧잘 좌우명으로도 사용된다.

이 책은 평생을 제방선원에서 선수행을 해 온 영흥 스님이 경봉, 전강, 춘성, 해암, 서용, 향곡, 성수, 송산 스님 등 근현대 30여 선지식과의 95회 법거랑을 통해 불법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영흥 스님에게 깨달음의 기연을 준 '육쟁이'

도인' 춘성 스님과 통도사 극락선원 조실 경봉 스님과의 수차례에 걸친 신문답, 조계종 중정을 역임한 서종 대종사와 그 시자(侍者)였던 영흥 스님과의 일상 속 신문답 등은 살활(殺活)이 자재한 선기(禪機)가 물씬 느껴진다.

영흥 스님의 신문답에는 공평과 광명, 풀잎과 돌맹이, 해와 달 등 토속적인 한국형 선구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심지어는 전통 민요인 '패지나 칭칭나네' 등의 사실이 등장할 정도로 신명나는 문답들이 많다.

영흥 스님은 행자 시절, 취침 전 서용 스님에게 불려갔다. 서용 스님은 영흥 스님을 보자마자 물었다.

"오즈음 행자생활은 어떠한?"

"집집마다 해와 달을 띄우고 패지나 칭칭 나네입니다."

"오즈음 사자생활은 어떠한?"

"거리마다 해와 달을 굴리며 패지나 칭칭 나네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달픈 행자 시절이지만, 영흥 스님은 날마다 '패지나 칭칭나네'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행주좌와와 어록풍정이 흥이 절로 날 정도로 '안심입명'한 수행 생활임을 토속적인 격의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 책은 현대 고승들과의 불꽃 튀는 법거랑과 함께 영흥 스님의 오도(悟道) 체험 등 구도기가 1인칭 화법으로 서술돼 있다.

아울러 참선 입문자나 재가 수행자들이 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스님의 선법문과 선시도 수록해 놓아 초심자들에게도 이해의 부담이 덜 느껴질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민희 편저	운주사
2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디어
4	바람 속 이야기	동화사편집실	운주사
5	절음 가져다 줄하는 법	현근	붓다의 마을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염불수행인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8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과경	불광
9	안거	봉문	법보신문사
10	옛 겨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정경각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기적의 파사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팔사요법이란?

팔사라는 것은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시술자의 손으로 환자의 체표에 어떤 역학적, 기계적 자극을 주어서 환자의 몸속에 나타나는 부조화나 불균형을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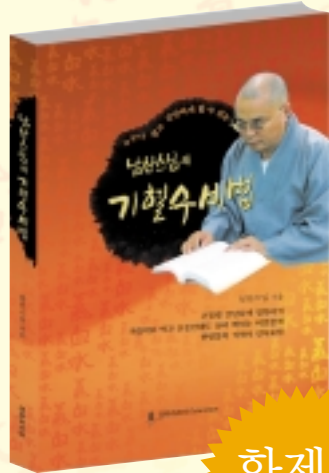
팔사로 피부에 반복해서 긁어주면 피부 아래의 조직이 자연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어 혈관과 신경세포, 임파선, 땀샘 등의 부위에 피하 출혈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속에 있던 어혈은 열이 나면서 풀리게 되고 또 이렇게 피하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어혈은 풀리면서 사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멍이 심하게 들 수도 있으나 이것은 사가 빠져 나오는 것으로 며칠 지나면 사라진다. 병이 호전되어 갈수록 멍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기혈수비법중에서-

팔사요법



물소뿔 팔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팔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냉상,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팔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굵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온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팔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화제의
신간

특별할인 행사 물소뿔 팔사 5개 구입시 1개 추가 증정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날개) 1만원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등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담석(희담석)은 암석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희담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했던 것을 원리분석과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